

● 사찰 방화관리자 왜 없나

#가상 상황1. 국가지정문화재인 목조 건축물을 소유한 사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국보 제1호 승례문처럼 국가 지정문화재가 화마에 사로잡힌 것이다. 시간은 자정을 넘긴 밤이고 화재가 난 건물의 경보기가 작동해 대중들이 화재 사실을 알고 달려 나왔다. 불길이 점점 크게 번지고 있는 상황. 대중들은 소화전의 호스를 끌어 오고 소화기를 찾기에 분주하다. 소화전의 호스를 끌어 왔지만 방화수 밸브를 틀리고 물을 뿌리는 과정까지 서툴기 그지 없다. 소화기를 찾아든 사람도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아 안전핀을 뺐고 분말을 뿌리는데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어느 곳을 겨냥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른다. 허둥지둥 하는 대중들을 통솔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화를 진두지휘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불길은 점점 더 크게 번지는데...

#가상 상황2. 화재경보기가 작동해 대중들이 달려 나온 것까지는 앞의 상황과 같다. 다른 것은 이 대중들이 소화전과 소화기 같고리와

양동이 등 소방장비가 있는 위치로 달려가고, 총무스님이 재빨리 휴대용 확성기를 들고 나타난 것이다.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총무스님은 "A 스님은 소화전 호스를 끌어오고 B 스님은 소화전의 밸브를 틀리세요. C 스님과 D 스님 소화전 호스 끄는 일을 돕고 물 뿌릴 때 압력이 세니까 함께 붙잡아주세요"라며 큰 소리로 현장을 지휘한다. 평소 '소화기 담당'으로 임무를 맡았던 스님에게 소화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다른 대중들에게 주변 건물들에 물을 뿌리고 내부의 중요한 물품을 대피시킬 것을 지시한다. 불이 난 건물의 불길은 조금씩 기세를 잃어간다.

산중의 사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첫 번째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거의 대부분의 사찰에 방화관리자가 없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훈련된 전문기러기 할지라도 위기 상황에서는 대처하는데 미숙할 수 있다고 볼 때, 1년에 한 두 차례 소방훈련을 해본 경험으로 실제 화재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 같은 맥락에서 사찰목조문화재를 화마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전문 인력 즉, 방화관리자의 상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정기적인 모의 훈련과 진화 매뉴얼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화작업을 위해 상주하는 전문가의 지휘가 필요하다는 것. 방화관리자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나 관계법령에 의해 자격증을 획득한 방화 전문가다.

그렇다면 사찰에 방화관리자가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 현행 법률상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소방법에서는 건물의 연면적이 600㎡ 이상 경우 등에는 2급 방화관리자를, 1만5000㎡나 11층 이상 건물 등의 경우는 1급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급 사찰목조건축물은 대부분 이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면적이므로 방화관리자 선임의 의무가 없다. 무엇보다 이 법은 단독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여러 채의 목조건축이 연접해 있는

사찰이라 할지라도 방화관리자 선임의무는 갖지 않는다. 이와 관련, 서울 종로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추가해서라도 방화관리자를 선임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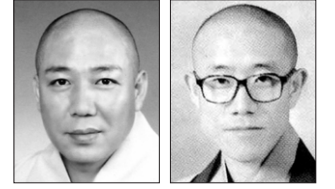
방화관리자의 선임 기준을 건물의 면적이나 용도 등에만 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소방차 출동 시간까지 기준으로 삼고 있다. 미국 LA 모하비 사막에 태고사를 창건한 무람 스님의 경우, 사찰의 낙성에 맞춰 소방당국의 교육을 받고 방화관리 관련 자격증을 획득했다. 태고사의 위치가 미국의 소방관계법에서 정하는 소방차의 최단 출동시간 10분을 넘어서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국가지정 문화재급 사찰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관리자 선임의 의무화 하고 스님 혹은 종무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해 자격증을 획득한 뒤 소방 관련 임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불교계 여론이 모아져야 할 시점이다. 임연태 기자

# 대다수 사찰 선임 의무 없어

## 600㎡ 이상 건축물만 해당...문화재 관련 별도 조항 마련 절실

### 초격·승언 스님 관음사 중의회원 선출



초격 스님, 승언 스님.

조계종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 중의회에 초격 스님과 승언 스님이 선출됐다.

관음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만희)는 2월 22일 열린 산중총회에서 초격(보광사 주지)·승언(홍부암) 스님을 각각 10표를 획득해 중앙중의회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후보 법정 스님은 8표, 해민 스님은 4표를 얻었다. 이날 선거에서 총 33명의 선거인단 중 32명이 참가했다.

관음사 중앙중의회원 선거에는 당초 7명이 후보로 등록했으나, 진아 스님과 현강 스님이 사퇴한데 이어 선거 당일 도종 스님이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혀 4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였다. 도종 스님은 초격 스님과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령 기자

## 조계종 행자교육원 168명 입교

제34기 지원자 집계 부처 갈마를 거치게 된다. 또한 22일간의 입정을 수료한 후 3월 18일 치러지는 5급 승가고시를 통과한 입교자들을 대상으로 3월 19일 수계종교교육원 봉행하게 된다. 한편, 지난 1991년 8월 제1기 행자교육원이 개원한 이래 매 기수별로 200~250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해왔으나 IMF 직후인 1997~1998년 180~200명 선으로 감소했다. 현재는 150~200명 선에 이르고 있다. 여수령 기자

### '수행 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올해 봉축표어로 선정

올해 부처님오신날 표어는 '수행 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로 선정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2월 21일, 지난 1월 실시한 봉축표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330점에 대한 심사 결과 정진회(서울 양천구계사)가 응모한 표어가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봉축위원회는 '수행 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라는 표어가 '생활 속에서의 수행과 치열한 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수령 기자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초청으로 2월 19일부터 4일간 방한한 중국 승산 소림사 20여 스님들이 신촌 봉원사에서 무술시범을 보이고 있다.

### "사찰 분담금 제도 개선" 조계종 중앙중회 공청회

조계종 중앙중회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황계)가 사찰 분담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재정분과위원회 '사찰과 중단의 재정개선 방안 연구모임(위원장 초격)'은 3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분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초격 스님이 '분담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경 스님이 '분담금 제도의 개선 방향 및 관련 중법안'을 주제발제 한다. 이어 장지 스님(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과 현진 스님(영주 관음사 주지), 원명 스님(광명 금강장사 주지)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에서는 분담금 부과 현황과 행정성 문제를 짚어보는 한편, 현행 사찰 등급 심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각종 부담금 부과 대상과 종류를 살펴본다. 또한 분담금 관련 법안 제·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연구모임은 공청회를 통해 개진된 의견을 반영해 중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식 안건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0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턴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예시마루 www.yosiamaru.com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광주지사: (062)268-1508  
 충청지사: (043)732-5560 영주지사: (054)634-3429  
 전북지사: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간과 장치를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 (前 KBS-TV/TV영양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02-2004-8279

## "소림무술 정수 보여 드립니다"

신촌 봉원사에서 시범 선보 "이얏, 약..." 태고종 신촌 봉원사에서 웬 소림사 스님들이 나타났을까?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총무원장 덕산) 초청으로 2월 19일 스승신(釋永信) 소림사 방장스님 등 20여 소림사 스님들이 방한, 태고종 영산재

인 느낌을 전해 줘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털어냈다. 덕산 총무원장도 "은사인 스승신 스님을 모시고 한국 불교문화와 소림불교문화를 서로 보여주며 양국의 불교문화를 함께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의미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번에 출범한 소림불교문화원 발족을 계기로 꾸준히 소림불교문화를 한국에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글=김주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 2008학년도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전기 신(편)입생 모집

귀의상보하옵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의식·범음(범배)을 계승·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8년도 전기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 의례의식의 진행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을 좀더 체계있게 전승발전 시키고자 범음·범배·요점 및 작법 등 예경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불자님 포교사님들의 많은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헤산 승삼 -

### 1) 모집학과

학 과	교육내용	모집인원	비 고
기본과정	예경의식 및 조·석 예법, 불공시식	20명	6개월
전통의식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49재의식, 천도제, 점안 및 제공의식, 전통교육	20명	1년
요점·작법과정	바라춤, 나비춤, 범고 등 사물 다루는 법, 호적	10명	6개월

### 2) 응시자격: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 3) 전형방법: 서류전형(면접)

### 4)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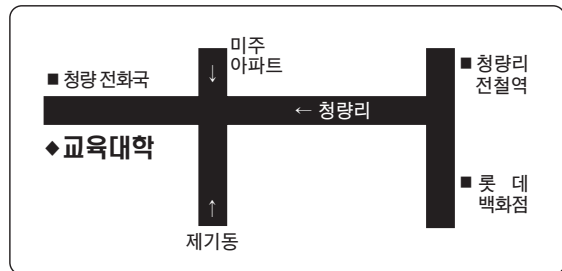
### 5)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주 4회(月~木)

▶ 접수일자: 2008년 2월 21일 ~ 3월 5일

▶ 입학일: 2008년 3월 6일

### ▼ 찾아오시는 길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